

省心篇 (下)

許京宗曰、春雨如膏 行人 惡其泥濘 秋月揚輝 盜者 憎其照鑑。

⇒ 허경종이 말하기를, 봄비는 땅을 기름지게 하지만 길가는 행인은 그 진흙탕을 미워하고, 가을달은 높이 밝게 빛나고 있지만 도둑은 그 밝은 비침을 싫어한다.

⇒ 許京宗が言うのに春雨は地を油っこくするが道を行人はそのどろを憎んで、秋の月は高く明るく輝いているが泥棒はその明るく映ることを嫌やがる。

景行録云、大丈夫 見善明故 重名節於泰山 用心精故 輕死生於鴻毛。

⇒ 《경행록》에 이르기를, 대장부[군자]는 착함을 보는 데 밝으므로 명분과 절의를 태산보다 더 무겁게 여기고, 마음씀이 밝고 깨끗하므로 삶과 죽음을 기러기 털보다 더 가볍게 여긴다.

⇒ 《景行録》に言うのに大丈夫[君子]は善良さを見ることに明るいので名分と絶義を泰山よりもっと重々しく思って、心を使うことが明るくてきれいなため生と死を雁毛よりもっと軽く思う。

悶人之凶 樂人之善 濟人之急 救人之危。

⇒ 남의 흉한 일을 보면 민망스럽게 여기고 남의 좋은 일을 보면 즐거워하고 남의 위급함을 보면 그것을 건져 주고 남의 위험을 보면 그것을 구해주라.

⇒ 他人の悪い事を見れば不憫に思って他人の良いことを見れば楽しく思うし、他人の危急さを見ればそれを助けてくれるし、他人の危険を見ればそれを助けなさい。

經目之事 恐未皆眞 背後之言 豈足深信。

⇒ 눈으로 직접 본 것도 정말 사실일까 하고 두려워하는데 뒤에서 하는 말을 어떻게 깊이 믿을 수 있겠는가?

⇒ 目で直接見たことも本当に事実だかと思って恐ろしがるのに後から言うことをどんなに深く信じることができるか?

不恨自家汲繩短 只恨他家苦井深。

⇒ 자기 집의 두레박줄이 짧은 것은 탓하지 않고 다만 남의 집 우물이 깊은 것만 탓한다.

⇒ 自分の家の釣瓶に縄が短いことは咎めないでただ他人の家の井が深いことだけ咎める。

賊濫 滿天下 罪拘薄福人。

⇒ 뇌물을 받고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이 세상에 넘쳐흐르건만 박복한 사람만이 죄로 붙잡힌다.

⇒ わいろを受けて不正をやらかす人が世の中に満ち溢れるけれども薄福した人だけが罪でつかまる。

天若改常 不風即雨 人若改常 不病即死。

⇒ 하늘이 만약 정도를 벗어나면 바람이 불지 않아도 비가 오고, 사람이 만약 상도(常道)를 벗어나면 병들지 않아도 죽게 된다.

⇒空がもし正道を脱すれば風が吹かなくても雨が降って、人がもし常道を脱すれば病まなくとも死ぬようになる。

壯元詩云、國正天心順 官清民自安。妻賢夫禍少 子孝父心寬。

⇒ 《장원시》에 이르기를, 나라가 바르면 하늘의 뜻도 순하고 관리가 깨끗하면 백성이 저절로 편안해진다. 아내가 현명하면 남편의 화가 적고 자식이 효성스러우면 아버지의 마음이 너그러워진다.

⇒ 《壯元詩》に言うのに国が正しければ空の意味も優しくて管理がきれいならば民が自然に楽になる。妻が賢明ならば夫の怒が少なくて子が親孝行ならばお父さんの心が寛大になる。

子曰、木從繩則直 人受諫則聖。

⇒ 공자가 말하기를, 나무는 먹줄을 따르면 곧아지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들으면 마음이 성스러워진다.

⇒孔子が言うのに木は縦の線に従えば真っ直ぐになるし、人は他人の忠告を聞けば心が神聖になる。

一派青山景色幽 前人田土後人收。後人收得莫歡喜。更有收入在後頭。

⇒ 한 줄기 푸른 산은 경치가 그윽하고, 옛사람이 가꾸던 땅을 후세 사람이 차지했구나. 후세 사람들이여, 그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기뻐하지 마라.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사람이 바로 그대 뒤에 있느니라.

⇒一筋の青い山は景色が美しく、昔の人が耕した土地を後世の人が占めたな。後世人々よ、その土地を占めたと行って喜ぶな。その土地をまた占める人がまさに君の後にいるからだ。

蘇東坡云、無故而得千金 不有大福 必有大禍。

⇒ 소동파가 이르기를, 아무 까닭 없이 천금을 얻는 것은 큰 복이 있어서가 아니니 만드시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蘇東坡がいうのにどんな理由もなく千金を得ることは大きい福があつてではないから必ず大きい災いがあるでしょう。

康節邵先生曰、有人 來問卜 如何是禍福。我虧人是禍 人虧我是福。

⇒ 강절 소선생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점을 묻기를 “어떤 것이 화(禍)가 되고 어떤 것이 복(福)이 됩니까?”라고 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면 화가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하면 그것이 복이 된다”고 했다.

⇒康節邵先生が言うのにある人が尋ねて来て占いを問うのを “どれが禍になってどれが福になりますか?”と言った。“私が他人を有害にすれば禍になるし、他人が私を有害にさせればそれが福になる。”と言った。

古書との出会い 省心篇 (下)

大廈千間 夜臥八尺 良田萬頃 日食二升。

⇒큰 집이 천 칸이라도 밤에 잘 때는 여덟 자면 족하고, 좋은 밭이 만 이랑이라도 하루에 두 되만 먹으면 족하다.

⇒大きい家が千間でも夜に寝る時は八尺なら充分で、良い畑が万坪でも一日に二升さえ食べれば充分だ。

久住令人賤 頻來親也疎。但看三五日 相見不如初。

⇒남의 집에 오래 머물면 남이 천하게 여기고, 자주 오면 친하던 사이도 멀어진다. 오직 사흘이나 닷새 사이인데도 서로 보는 눈이 처음과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他人の家に長居をすれば他人が賤に思うし、たびたび来れば親しかった関係も遠くなる。ただ三日や五日の間なのにお互いに見る目が初めてようではないことを分かる。

渴時一滴 如甘露 醉後添盃 不如無。

⇒목마를 때 한 방울의 물은 단 이슬과 같지만 술 취한 후에 잔을 더함은 없는 것보다 못하다.

⇒喉が乾く時の一滴の水は甘い露のようだが酒に酔った後に杯を加えることはないより良くない。